

자녀교육, 가사일 여성만의 책임인가?

탁영숙(평화민주당 부총재·국회의원)



아직도 우리사회는 남성은 사회적인 일, 여성은 가정일에
종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깊다. 또 아이를 양육하고
가사일을 하는 것은 여성의 책임이라는, 그리고
그것이 여성의 보람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신비화되고
미화되어 왔다.

작년 썸이던가..., 직장에 다니는 부인과 다섯살
난 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있는
맹명관 씨가 쓴 육아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아이가 자라는 모습에 관심
도 없고, 아이를 다루는 일에도 무능하다는 사회통
념을 명쾌하게 깨뜨린 그의 글에서 나는 오늘 새로
운 세대의 가족문화를 엿볼 수 있어 아주 기분이 좋
았다.

그분은 그의 글에서 흔히들 여성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자식에의 애착과 생명에의 경외심, 포용력
등이 여성들만의 능력이 아니라 그러한 역할이 교육
이나 사회제도 속에서 여성들에게만 요구되어 왔음
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남성들도 자신 속에 잠재되
어 있는 그 능력을 개발하고 노력할 때에 비로소 남
녀 모두가 인간답게 그리고 평등하게 어우러져 함께
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맹명관 씨는 그후 TV 토론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도 보는 이를 흐뭇하게 해 주었다. 그는 육아일기도
쓰고, 빨래나 설거지 등을 하는 것이 남자로서 창피
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
하여 "이 다음 결혼한 딸의 집에 갔을 때 딸은 일 속
에 파묻혀 쿵쿵 뛰고 있는데, 사위란 놈이 방에 누워
TV 나 보고 있다면 사위를 결코 용서치 않을 작정
이다."고 대답했다. 아마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여성들은 그러한 그의 말에 박수를 쳤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는 남성은 사회적인 일,
여성은 가정일에 종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깊다.
모든 아이를 양육하고 가사일을 하는 것은 여성의
책임이라는, 그리고 그것이 여성의 보람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신비화되고 미화되어 왔다. 가끔 신문지상
에 보도되는 청소년 문제들도 어머니가 가사를 등한
시하거나 자녀양육에 대한 임무를 태만히 해서 생긴
것이라는 식의 보도경향을 갖고 있어 여성들에게 무
언의 사회적인 압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우리들에게
그동안 우리들이 가져왔던 사회적 가치관에 대한 새
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있으며, 여성 스스로도 취업을 하여 사회
적 제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가져왔던 일하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달리 새롭게 변화하고 있음
을 보이는 것이다. 예전에는 여성이 직업을 가지면 마
치 남편이 무능력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같은 사
회적 편견이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여성이 자기
를 실현하고,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직업이 있
어야 한다는 생각을 남성들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경우에도 자녀
양육에 대한 임무를 여성들이 전담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약에 여성이 직업을 갖는 문제와 자녀양육
문제가 상충될 경우에는 으레껏 자녀양육을 위해 직
업을 양보해야 하는 것이 묵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제도적으로 여성이 사회적 노동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한 뒷받침이 없는 상태
에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겪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너무 크다.

국가의 지원으로 탁아소가 지역마다 직장마다 설치되어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할 수 있고, 또한 청소년센터들이
많이 생겨 공부방이나 건전한 놀이시설, 그리고 재미있는
문화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자녀교육을 도와주어야 한다.



저 소득층 기혼 취업여성 부담 커

지난해에 노동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기혼 취업여성의 수는 1백 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혼취업여성을 위한 탁아시설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소득이 아주 낮은 빈곤계층 여성들이 겪는 자녀양육부담은, 경제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어서 파출부 등 양육을 전담해 줄 대체노동력의 도움을 받는 여성들과 비교할 때 너무 크다.

지난 3월 9일 서울 망원동의 한 지하실 셋방에서 불이 나 어린 두 남매가 가스에 질식사한 사건은 저 소득층 자녀들이 사고의 위험이 많은 환경 속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냥 두면 자꾸 거리로 나가 교통사고나 유괴를 당할까봐 방에 두고 문을 잠갔다는 어머니의 말은 우리 나라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가 겪는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후에 그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느낀 것은 두 남매의 어머니가 아이들의 죽음을 자신의 무책임 때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까웠다. 가정 살림이 넉넉해서 어쩔 수 없이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던 어머니가 두려운 것은 시댁 식구나 남편이 아이들의 죽음을 그의 탓으로 돌리고, 질책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여간 전문직 여성이든 저소득층의 맞벌이 여성

사랑이란 이름으로 미화된 아내와 어머니의 헌신 뒤에 숨겨져 있는 가족구성원들의 이기성을 우리는 한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이든 서로가 겪는 고통의 정도는 많이 다르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심리적으로 겪게 되는 부담은 같은 것이다. 아이들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길 때에는 아이들을 상시적으로 돌보지 못했다는 책임감과 죄책감에서 갈등을 겪는 것이다.

그런데 취업여성들이 겪는 또다른 갈등은 남편들이 갖고 있는 가정생활에서의 이기심이다. 일터에서 돌아오자마자 집안일을 해야 하는 부인을 도와주는, 그리고 그 아내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는 남편들이 얼마나 될까? 어쩌다 휴일이 되어도 아이들과 밀린 집안일에 하루종일 시달리는 아내를 보면서 자신은 무심하게 TV나 신문만을 보고 있는 남편들이 많을 것이다.

남성의 이기심이 가정 불화불러

어느날 한 후배가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는데, 자신은 자기 남편의 이기심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한 여성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요일에 간혹 회의가 생겨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가려 해도 남편은 한번도 흔쾌히 아이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이도 엄마와의 친화력이 더욱 깊은 터라 엄마를 따라 가겠다고 나서 결국은 자신이 아이를 데리고 모임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가끔씩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마져 들 때도 있다고 한다. 그는 나보다 20여년 아래의 후배인데, 우리 세대보다 훨씬 치열하게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신 세대로서 자신들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을 갖고 있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 후배가 겪는 문제는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남편들이 가사일이나 아이들 보는 일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고쳐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좀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사회복지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을 위한

탁아소가 지역마다, 직장마다 설치되어 부모들이 아이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하며, 또한 지역마다 청소년센터들이 많이 생겨 공부방이나 건전한 놀이시설, 그리고 재미있는 문화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자녀교육을 도와주는 일 등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각 가정의 복지서비스가 미흡한 편이다. 우리나라 총예산의 4.8% 정도가 복지예산인데, 이는 국방예산이 30%라는 것과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국회 보사분과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나는 우리 나라가 군사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줄 때만이 여러 분야의 복지제도가 보완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얼마전의 한·소 정상회담 이후 항간에는 군축에 대한 논의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우리 나라가 통일되어 군사비 지출이 적어진다면 우리 국민들은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 우리들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사랑이란 서로가 어려운 점을 나누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내와 남편과의 사랑도 막연히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어려움을 서로 나누어가야 한다고 본다.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이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은 어머니의 과중한 가사일을 부담하려고 하는 생각을 미처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미화된 아내와 어머니의 헌신 뒤에 숨겨져 있는 가족구성원들의 이기성을 우리는 한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지난해 11월, 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을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탁아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망원동에서 질식사한 혜영·용철 두 남매의 죽음을 위로하는 위령제에서 가난한 어머니들이 외쳤던 바램에 조그만 기여라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그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은 이렇게 외쳤다.

‘엄마에겐 일할 권리를!’ ‘아이들에겐 보호받을 권리를!’ 